

## 탐라인(耽羅人)들에게 드리는 당부

### 미륵불

《인도》 남부 지방에서 《구석기인》으로 진화하여온 《노사나불》 직계(直系) 《스키타이(Scythians)》 《구석기인》들이 《BC 4500년》 《이란》에서 《인도》 동북부 지방으로 이동하여 온 《쌍둥이 천왕불》의 후손들인 《드라비다족(族)》들이 《인도》 남부로 점차 이동하게 됨으로, 그들의 최고 조상(祖上)이신 《노사나불(佛)》의 명령에 따라 《스키타이(Scythians)》 《구석기인》들이 《BC 4500 ~ BC 4000》년까지 세 부류로 나뉘어져 해상(海上) 루트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제1진으로 출발한 《스키타이》 《구석기인》들이 《한반도(韓半島)》로 들어오게 되며, 제2진으로 출발한 《스키타이》 《구석기인》들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여 《일본》 《본토》 심장부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이후 제3진으로 출발한 《스키타이(Scythians)》 《구석기인》들이 같은 경로를 따라 《캄보디아(Cambodia)》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이들 모두들의 이동은 《BC 4000년》 이전에 모두 완료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 열도》로 봐서는 최초의 주인(主人)이 되는 무리가 《스키타이》 《구석기인》들이 되는 것이다.

출처 : 미륵불 (2015), 진실된 세계의 역사와 종교 上, (주)아나, 199쪽.

상기 기록은 [『[진실된 세계의 역사와 종교 上\(미륵불 저, 2015\)](#)』 3.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주도하시는 지상(地上)의 마지막 문명기 - [8] 일본 - (1) 구석기인들의 일본 열도 정착] 편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러한 기록에서 민족 이동 문제를 다루다 보니 세세한 기록을 하지 못하고 크게 묶어 기록한 탓에 일부 중요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서 이중 일부분을 다시 상세히

기록하면, 《스키타이》《구석기인》들이 《BC 4500 ~ BC 4000》년까지 세 부류로 나뉘어 해상루트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제1진으로 출발한 《스키타이》《구석기인》들은 인도 중남부에 거주하던 일부 《구려족(九黎族)》과 함께 해상루트를 따라 이동하면서 일부 《구려족(九黎族)》들은 오늘날의 《제주도(濟州島)》에 정착을 하고 《스키타이》《구석기인》들은 한반도(韓半島)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때 《제주도(濟州島)》에 정착한 《구려족(九黎族)》들이 중원대륙 《요하(遼河)》 유역에서 일어난 《홍산문화》와 관계된 《구려족(九黎族)》들보다는 교화(教化)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이다.

이러한 이후 《한반도》에 BC 3898년 《한국(韓國)》이 세워진 후 《한반도(韓半島)》 내의 《구석기인》들을 《신석기인》으로 전환시켜 교화할 때 《스키타이》《구석기인》은 《노사나불계(系)》에서 교화하고 《제주도》에 정착한 《구려족》《구석기인》들은 《관세음보살계(系)》에서 교화하여 《탐라인(耽羅人)》으로 자리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제주도》에 많은 《무속인》들이 자리하게 되는 배경이 되며,

때에 노사나불의 후손들인 《스키타이》《구석기인》들을 따라 이동하여 《제주섬》에 정착을 한 《구려족》《구석기인》들이 훗날 교화되어 《탐라인(耽羅人)》으로 자리한 후 고마움의 증표로 《노사나불》을 《돌하르방》으로 형상화하여 섬기게 된 것이다.

제주도(濟州島)의 상징 산(山)은 《한라산(漢拏山)》이다. 이러한 《한라산(漢拏山)》에 대한 천상(天上)의 글뜻의 의미는 웅지(熊志)를 가진 『사나이를 끌어당기는 산』으로 해석하며 《제주도(濟州島)》의 옛 지명인 《탐라도(耽羅島)》는 『즐거움을 펼치는 섬』이라는 뜻이며, 이후 이름 붙여진 《제주도(濟州島)》는 『성공하는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라산(漢拏山)》, 《탐라(耽羅)》, 《제주(濟州)》가 가진 뜻의 의미는 웅지(熊志)를 가진 『사나이를 끌어 당겨 즐거움을 펼쳐 성공하는 나라』로써 천상(天上)에서는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의 숨은 뜻은 《제주도(濟州島)》는 불가(佛家)의 《우주의 어머니(母)》이신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나라라는 뜻이다. 고로, 이의 대표되는 상징이 돌과 바람과 여인이며, 지금 《관광산업(觀光産業)》으로 성공한 《제주도》를 염두에 두시면 《한라산(漢拏山)》, 《탐라(耽羅)》, 《제주(濟州)》가 가진 뜻말을 쉽게 이해하실 것이다.

필자의 저서(著書) 여러 곳에서 밝힌 바 있듯이 《관세음보살》의 후손들이 《구려족(九黎族)》이다. 이와 같은 《구려족(九黎族)》이 《중원대륙》의 일부와 《한반도(韓半島)》 북부 지방을 포함하여 만들어진 나라가 《고구려(高句麗)》이며, 이러한 《고구려(高句麗)》가 훗날 멸망한 후 《고구려(高句麗)》의 귀족(貴族)들이 피난하여 정착한 곳이 《제주도》로써 지금도 《고(高), 부(夫), 양(良)》씨(氏)가 엄연히 집성촌(集成村)을 이루고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이후 한반도(韓半島)에 세워진 나라들이 《고려왕조(高麗王朝)》와 《조선왕조(朝鮮王朝)》로써 두 나라 모두 《악마(惡魔)의 신(神)》들인 《대마왕신(大魔王神)》들과 《대마왕(大魔王)》들에 의해 통치되면서 통치의 과정 중 이들에 저항을 하다가 거세된 일부인들이 유배(流配)라는 멍에를 쓰고 《제주도(濟州島)》로 귀양 온 자 대부분들이 똑똑한 《구려족(九黎族)》 출신들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고려 때》《삼별초 난》에서 여몽연합군에 저항을 하던 군인(軍人)들이 대부분 《구려족(九黎族)》 출신이다.

이와 같이 《자의(自意)》에 의하든 《타의(他意)》에 의하든 훌륭한 《구려족(九黎族)》 출신 장정들이 《한라(漢拏)》, 《탐라(耽羅)》, 《제주(齊州)》의 글뜻에 담긴 내용과 같이 지배를 받기는 하였으나 일찍부터 《대마왕신(大魔王神)》들과 《대마왕(大魔王)》들을 피해 《제주도》에 몰려든 것이다.

역사는 흘러 이러한 《구려족(九黎族)》 대부분이 자리한 《이북(以北)》은 《공산화(共產

화)》되어 《공산사상(共產思想)》에 깊이 물들어 있고 《남한(南韓)》의 일부 《구려족(九黎族)》들도 대부분 《공산사상》에 세뇌되어 《남북통일》을 외치고 있으나 《남북통일》이 《공산사상》을 가진 《지도부》의 상투적인 《적화통일》의 술책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오늘날 《이북》이 핵(核) 무장을 하고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오로지 《남한(南韓)》의 《적화통일》을 위한 《미국》 견제용이라는 사실과 남북 《연방제》 역시 《적화통일》을 위한 중간 단계로써 이 《연방제》 기간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남한》 백성들은 알아야 하며 이들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주적(宇宙的)》인 이유로 후천우주(後天宇宙)의 중심이 되는 중앙천궁상궁(中央天宮上宮)이 될 《남한(南韓)》을 《공산사상(共產思想)》으로 정복하여야 할 이유 때문에 《이북 공산당》이 미친 듯이 설치고 있다는 점을 오늘을 살고 있는 인간 무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공산사상(共產思想)》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구려족(九黎族)》들이 오롯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제주도(濟州島)》로써 이러한 《제주도》에는 작금 《공산사상》으로 물든 자들이 일부 자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일부로써 대부분의 《공산사상(共產思想)》에 물들지 않은 《제주인》들을 위해 이와 같이 전체적인 분석을 하여 그대들을 일깨우기 위해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분이 바로 내세(來世)의 여러분들 구원(救援)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미륵부처님》이시다.

이제 때가 되어 《미륵부처》가 《탐라인》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구상(地球上)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명(文明)》은 그 《종말(終末)》이 불과 23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관음불 1세》 이신 《대비관세음보살\(大悲觀世音菩薩\)》](#)님께서는 《공산사상》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구려족(九黎族)》 후손 구원을 위해 일찍부터 《후천우주(後天宇宙)》 《관세음보살》 중 한 분과 《관음불 1세》께서 아끼시는 《따님》 한 분을 《제주도》에 태어나게 하시어 마지막 문명의 종말인 《아리랑 고개》를 후손 민족들을 거느리고 무사히 넘기 위해 보내 놓고 있다.

《아리랑》 고개를 넘은 사회(事會)는 《문명(文明)》이 파괴되어 휩쓸고 간 자리에 그대로 이상사회(理想事會)가 펼쳐지는 곳으로 되며 인간 육신(肉身)의 집착을 벗어난 《인간 영생》의 길로 들게 되며 이 길에는 《공산사상》을 가진 자와 현재 《기독교》, 《천주교》, 《마왕불교》를 신앙하는 자는 한 명도 넘지 못하는 고개가 《아리랑 고개》이다.

이러한 때를 맞을 준비를 《공산사상》에 물들지 않은 《관음불 1세》의 후손들인 《제주인》들은 지금부터라도 현재 《제주》에 와 계시는 후천우주 《관세음보살》 중의 한 분과 《관음불 1세》께서 아끼시는 《따님》의 가르침을 받아 정진하는 삶을 영위하시면 곧 때에 따라 이 《미륵부처》가 그대들을 위해 진리(真理)의 경(經)인 《묘법화경(妙法華經)》을 강설할 준비를 모두 하고 있다. 고로 지금부터라도 이 두 분을 스승으로 하여 《아리랑 고개》를 넘을 수 있는 공부와 정진들을 하실 준비들을 하시라고 먼저 《천상(天上)》의 뜻을 《제주인》들에 처음 전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무속인(巫俗人)》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대들은 모두 여러 신(神)들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이제 때가 오면 이 《미륵부처》가 그대들의 주인 노릇을 하는 《신(神)》들에게 그들의 심부름꾼으로부터 떠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천상(天上)》의 명령을 할 것이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신(神)》들은 모조리 파(波)하여 우주간에서는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神)들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던 무속인(巫俗人)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첫째, 브라만법화연수원 《제주 지원》에 오셔서 참회기도법을 배워 정성스러이 100 일 기도를 하면 지금까지 그대들 주인 노릇을 하던 《신(神)》들로부터 해방되어 지금까지 《신(神)》들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쌓은 《신업(神業)》으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연후 그대들은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나 《미륵부처님》이나 《관음불 1세》나 《관음불 2세》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이며,

셋째, 이와 동시에 진리(眞理)의 경(經)들을 브라만법화연수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받아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을 한 후,

넷째, 찾아오는 답답한 중생(衆生)들을 진리(眞理)의 길로 인도하면서 진리(眞理)의 경(經)을 수호하는 우주간(宇宙間)의 수많은 보살들의 힘을 빌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면,

다섯째, 그들이 내미는 보시금(布施金)을 받아 생활하라. 이러한 당부를 충실히 이행하였을 때 천상(天上)은 그대들에게 절대 밥을 굶게 한다든지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그대들을 보호하게 된다.

이로써 그대들은 《천상(天上)》의 훌륭한 재목들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미륵부처》의 당부를 외면하였을 때 그대들은 육신(肉身)을 벗은 후 《원유지옥》이나 지독한 지옥인 《유간지옥》에 떨어져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이 당부에는 바늘 끝만큼의 여유도 없음을 밝혀 두는 바이며, 전 무속인(巫俗人)들에게 이제부터라도 정도(正道)를 따르라고 당부드리며,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려 드리는 바이다.